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2.(수) 11:00 < 11.3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2.(수)
담당 부서	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재식 (044-203-5360)
		담당자	사무관 오승헌 (044-203-5366)

탄소중립 기업역할 강화 위한 알이백(RE100) 국제 컨퍼런스 개최

- 알이백(RE100) 주관기관인 CDP, 클라이밋그룹 및 국내외 기업 참석 -

- 국가별 알이백(RE100) 현황 공유 및 탄소중립 기여 위한 개선방안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는 '22.11.2(수) 오후 13:00 **「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알이백(RE100) 국제 컨퍼런스」**를 개최하여, 알이백(RE100) 캠페인 주관기관 및 국내외 기업·기관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**알이백(RE100) 이행방식**에 대한 **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**하였다.

< 알이백(RE100) 국제 컨퍼런스 개요 >

◇ 일시/장소 : '22. 11. 2(수) 13:00~14:40(100분) / 일산 킨텍스 6C홀

◇ 참 석 자 : (정부)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
(업계) 삼성전자, 에스케이하이닉스, 애플, 타이완 시멘트 등 국제 알이백(RE100) 기가입 및 관심기업 임원 등
(기관)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(CDP) 위원회, 더 클라이밋 그룹(The Climate Group), 에경연, KEI 컨설팅, 한국에너지공단 등

○ 이번 컨퍼런스는 **국내·외 알이백(RE100) 이행 여건**을 **비교·공유**하고,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·이용 환경이 **불리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알이백(RE100) 이행 방안**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○ 국내 기업들의 **알이백(RE100) 가입과 관심은 확대**되고 있으나, 해외 대비해서 좁은 국토면적, 높은 산지비중, 수력·바이오 잠재량 한계, 고립계통 등으로 인해 **재생에너지 공급량과 가격 측면에서 알이백(RE100)이행에 불리한 면**이 있다.

□ **기조연설**에서 국제적 알이백(RE100) 캠페인을 주관하는 **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(CDP)**와 **더 클라이밋 그룹(The Climate Group)** 등은 **기업의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강조**하였으며, **KEI 컨설팅**은 **한국의 알이백(RE100) 이행여건과 개선방안을 제시**하였다.

○ **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(CDP) 및 더 클라이밋 그룹(The Climate Group)**은 기후변화 대응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**탄소배출 관련 정보공개 및 알이백(RE100)캠페인**의 역할을 강조하면서, **한국의 알이백(RE100) 이행수준 확대**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을 건의하였다.

○ **KEI컨설팅**은 **제한적인 보급여건**으로 인한 **높은 재생에너지 구매·투자비용**이 국내 알이백(RE100) 이행에 **가장 큰 장애요인**이라면서,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**유연한 이행 인정 기준**을 **검토**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.

□ **패널토론**에서 토론자들은 한국, 대만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**유럽연합·북미 등과** 비교시 **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**이라면서, 재생에너지 **조달·인정 기준 등의 개선방안 검토가**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.

○ 이날 참석한 원황린 타이완 시멘트 부사장은 “**해외 REC(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)구매** 등 **인정기준 개선의 필요성**이 있다”면서, “**산업구조가 비슷한** 한국, 대만 **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내 연계협력**이 필요하다.”고 하였다.

○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“알이백(RE100)은 전세계 캠페인이지만, **국가별 재생에너지 가격 등이 상이**하므로 **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**”하다면서, “**탄소중립을 위해 실시간 사용 전력의 무탄소화를 목표**로 **하는 무탄소에너지100(CF100)을 추진해야** 한다”는 의견도 밝혔다.

□ 행사에 참석한 **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**은 “알이백(RE100) 캠페인 참여 등 탄소중립을 위한 **기업들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높이 평가**”한다면서

○ “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**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**”하는 한편,

○ “**단기적**으로는 알이백(RE100) 기업 대상 **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**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, **장기적**으로는 **비용효율적인 보급체계** 마련과 국내 재생에너지 **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**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컨퍼런스 개요**

□ 추진 배경

○ 우리 기업들의 알이백(RE100) 가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알이백(RE100) 이행 관련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 제기

□ 행사 개요

○ (일시/장소) '22.11.2(수) 13:00~14:40 / 일산 킨텍스 6C홀

○ (참석자) 산업부, 알이백(RE100) 참여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등

- 산업부 : 재생에너지정책관, 재생에너지정책과장
- 업 계 : 삼성전자, 에스케이하이닉스, 애플, 타이완 시멘트 등 국제적 알이백(RE100) 기 가입 및 관심기업 임원 등
- 유관기관 :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(CDP) 위원회, 더 클라이밋 그룹(The Climate Group), 에경연, KEI 컨설팅, 에너지공단, 카이스트 등

○ (논의내용) 국내외 관련기관과 알이백(RE100) 이행상황 공유, 국가별 여건 차이에 따른 개선방안 및 국제적 연계협력방안 논의

< 컨퍼런스 세부진행 계획(안) >

시 간	내 용	비 고
13:00~13:05 ('5)	축사	재생에너지정책관
13:05~13:45 ('40)	기조연설 *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(CDP), 더 클라이밋 그룹(The Climate Group), Apple, 케이이아이컨설팅	CDP 아태 담당 더 클라이밋 그룹(The Climate Group) 매니저 애플코리아 부사장 KEIC 상무
13:35~14:15 ('40)	산업계 등 국내외 기관 자유토론	토론자 8인
14:15~14:35 ('20)	질의응답	참석자 전원
14:35~14:40 ('5)	마무리	에경연